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집회 후 교육관에서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헤른후트 기도서와 하늘양식을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
서 한 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맞이축하행사가 오후 1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열립
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화) 11시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예배
가 25일 오후 3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새 전화번호부 작성을 위해 로비에 마련된 명단에서 자신
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과 2월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
시는 분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통독 성경 : 마태 · 마가 · 요한복음
일 시 : 1월 7-9일 (월-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 소 : 교육관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25일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유주연 김필순 김훈동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안경아 김미혜 김윤수 민병배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25일까지)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준하 김영아 이민범 김정우
떡 대 접 : 안준용 이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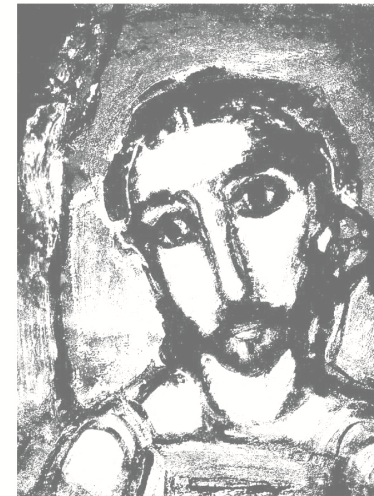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어둠에 익숙해져 빛을 불편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안으로 받아들여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켜 나가게 하시고, 당선의 기쁨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의 뜻까지 깊이 존중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경수 김경혜 김문주 김순자 김연실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준호 곽혜자 박병구 박영희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서수진 송임희 안세진 양상철 박재란 이봉옥 이종배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임주빈 최현옥 장동훈 정은선 정완수 김재광 주경진 이윤정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권미정 김상근 최선미 김수은 문금석 박병구 변재민 이소혜 이순정
 이유일 김미희 정복순 정현주 최미자 홍성식 이유리 무명3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심	심

마음으로 읽는 글

다시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보내신분의 뜻을 따라, 빛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가끔 가야 할 길을 잃고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빛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보여 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축하	설교 : 이범석 목사 기도 : 박영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곽권희 권사 박두석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정민 장대호 심상숙 이해령 한숙경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간 어데 댕겨온겨?” 골목을 막 들어서는데 샬리가 반색을 하며 반긴다. 어지간히 기다린 눈치다. 내 팔목을 잡아끌고 모퉁이로 가더니 봉투를 연다. 영호가 보낸 성탄카드와 가족사진이다. 샬리의 쪼글쪼글한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분가루가 오늘따라 화사하게 빛난다.

매일 무료진료소로 출근하는 길에 나는 일부러 이 쪽방골목을 선택한다. 큰 길을 놔두고 굳이 좁고 어두컴컴하고 꼬불꼬불한 이 골목을 지나가는 이유는 그녀 때문이다. 샬리 할머니는 삼십년 넘게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자 원주민이다. 직업은 ‘삐끼’ 베테랑이다. 고객은 이 골목을 지나가는 모든 성인 남자들, 영업 전략은 무차별 공격 마케팅이다. 문제는 어쩌다 길을 잘못 든 진료소 방문객들이다. 짐작은 분들이 그녀에게 팔을 잡히면 난감하다. 이럴 때 내가 출동해서 해결해야한다.

이때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그녀의 허탈한 심정은 오죽할까. 이러다보니 나는 그녀의 영업을 방해하는 눈엣가시가 되었다. 카~악 가래침 빨기, 썰러보기는 물론 공치는 날은 내 머리채라도 잡을 듯한 기세다. 우리는 이렇게 앙숙시간이 되어 이 골목에서 십년을 지냈다.

샬리와 나의 냉전은 우연한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지름길로 간다고 서두르다가 골목길의 하수구 뚜껑 사이에 내 발이 빠진 것이다. 그날도 샬리는 우산을 쓰고 영업 중이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그녀뿐. 내 비명소리에 그녀는 쓴살같이 손전등과 막대기로 무장하고 나타났다. 날쌔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수구 뚜껑을 빼더니 내 발을 건졌다. 신발까지 건져 내던지며 “싸게 꺼져!”

그날 이후 샬리의 스타일, 노랗게 물들인 머리, 울긋불긋한 화장, 아슬아슬한 노출, 천박하다고 느꼈던 그 스타일이 정겹게까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골목입구의 삼백 원짜리 자판기 커피와 봉어빵을 서로 먼저 쏘겠다고 덤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샬리가 동두천에서 이곳 쪽방까지 오게 된 것은 남동생 영호 때문이다. 동두천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영호는 중학생이었고 그녀는 열아홉 살이었다. 남매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러다가 그녀가 먼저 고아원을 나와 식모살이, 염색공장, 식당을 전전하다가 술집, 다방을 거쳐 수입이 좋다는 이 길로 들어섰다. 영호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 때

문이다. “가가 겁나게 공부 잘해버렸으께” 영호는 천재였다. 전교 1등은 도맡았다. 영호의 꿈이 커 갈수록 그녀는 초조했다. 다방에서 술집으로 그리고 윤락으로 동생을 위해 그녀의 직업도 위험한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나 행복했다. 고생도 기쁨이었다. 영호를 위해서라면, 영호의 꿈도 진화했다. 일류대학을 거쳐 미국유학, 결혼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결핵에 걸린 것이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이었다. 의사는 요양을 권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영호의 뒷바라지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연구소에 취직을 한 뒤 결혼을 한다고 초청했을 때도 그녀는 가지 않았다. 결국 한 쪽 폐를 잘라내고 숨이 차서 한 발자국을 옮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핵요양원에서 몇 년을 지내야 했다. 결핵 요양원을 나오자 빛만 남았다. 다시 서울역에서 ‘삐끼’를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영호는 푸른 눈의 아내, 아들, 딸의 사진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녀는 가족이 될 수 없었다.

요즘은 좋아하는 자판기 커피를 권해도 샬리가 시무룩하다. 재개발로 쪽방이 헐린다는 소문 때문이다. 곧 철거통지서가 날아 올 것이다. 걱정이 돼서 “샬리 갈 데 있어?” “걱정도 팔자제!” 걸으려는 당당하지만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안다. 사진 속에서만 살아있는 동생 영호는 이미 샬리에게는 먼 나라 사람이 되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피해를 볼 거라고 믿는다. 더러운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숨어 살 것이라고 맹세했단다. 그런 그녀와도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온다.

올 성탄이 그녀와 보내는 마지막 성탄이 될 것이다. 되짚어보니 지난 십년 동안 샬리에게 성탄축하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우리가 몸을 팔지 않았고, 우리가 포주질 하지 않았고, 우리가 뚜쟁이질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가 그렇게 번 돈으로 밥 먹고 학교 다녔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동생 영호를 포함해서.

그녀에게 줄 성탄 카드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 겸손하고 착한 샬리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찾아오길 기도한다. 뒤늦게나마 그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아무 쓸모없는 듯/ 강퍽 한 가운데에/ 버티고 선

작은 돌섬 하나/ 있음으로 해서/ 에돌아가는/

새로운 물길 하나 생겨난 거지 (정세훈, 저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 심명희, [심명희의 행복선언] (약사. 선우경식기념 자활터 봉사자)